

배우고 수시로 익혀야 살아남는다



윤위중의
잠시 심포

메트로신문 근처에는 친절한 서비스와 집밥 같은 맛으로 이름 난 음식점이 있다. 이 곳은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하면 자리를 잡지 못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던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요즘 이 음식점에 손님이 뜸하다고 한다. 이 음식점을 자주 찾다가 최근 발길을 끊은 한 손님은 “메뉴가 몇년째 똑같아 이제는 질린다”며 그 음식점에 가지 않은 이유를 들려줬다.

그리고보니 근처 빵집이나 음식점들 가운데 메뉴 개발을 하지 않는 곳이 많이 보였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새로 개발된 메뉴가 없다. TV에서는 지상파는 종편이든 케이블이든 서로 ‘떡방 경쟁’을 하며 사람들의 미각을 자극하며 맛을 찾아 다닐 것을 부추기고 있다. 시청자들의 눈높이는 최고 수준에 올랐다. 적극적인 사람들은 실제로 맛집을 찾아다니는 취미를 붙이고 있다. 이처럼 소비 트렌드는 변덕이 심한데 신메뉴 개발은 하지 않고 한 두 메뉴만으로 몇년째 장사하는 걸 보면 우직한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의 변화를

나몰라라 하는 강심장 같기도 하다.

돈금 없이 동네 음식점 애기를 꺼낸 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변화에 대한 체감온도’가 너무 다르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다. 물론 대기업보다 더 변화와 혁신을 하는 중소기업들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은 하루하루의 생계가 벅차 내일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아 더 민첩하게 변할 법도 한데 조직이나 자금의 여유가 없는 현실을 극복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반면, 대기업들의 변화 속도는 따라잡기 힘들 정도다. 새해 초부터 국내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대기업들이 줄줄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현대차, LG, SK, 포스코 등 재계를 리드하는 기업체 수장들의 화두는 ‘변화와 혁신’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삼성전자 김기남 사장의 신년사는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의아할 정도다. LG의 구본준 부회장도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으며 최대원 SK 회장은 “중진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새로운 SK의 원년을 만들자”고 주문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올해 자동차 판매목표를 지난해 목표치보다 낮게 잡으면서 책임경영을 주문하기도 했다. 글로벌 시장여건이 어려운 걸 알고 구성원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대기업들을 보면 무섭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변화에 대한 체감이 이렇게 다르다보니 둘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대기업들은 전세계 모든 기업들을 경쟁상대로 삼아 개념조차 모호한 4차 산업혁명의 그림을 스스로 그려가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일자리 미스매칭으로 고급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데다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을 끌어 쓰기도 쉽지 않다. 부익부빈악화의 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이런 상황만 타하면 사업 실패의 변명은 될 지언정, 답을 찾을 수는 없다. 알을 낳는 정도의 고통과 좌절을 단행하지 않으면 변화의 단초를 잡을 수 없다. 공자는 ‘배우고 수시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걸 현대 경영에 접목해보면 ‘신기술이나 첨단 경영 기법을 배우고 수시로 실행해야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해서 기쁘지 않겠나’로 해석할 수 있다. 살아남으려면 기업 규모를 떠나 수시로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산업부장 yhj@metroseoul.co.kr



우리은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억 기탁

우리은행은 지난 2일 서울시 중구 사회 복지공동모금회에서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을 열고 이웃돕기 성금 1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오른쪽)이 이웃돕기 성금 10억원을 기탁한 뒤 허동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새해맞이 강원지역 격려 방문

IBK기업은행은 지난 2일 김도진 은행장(네번째)이 새해 첫 일정으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강원지역 영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행장은 새로 개통된 경강선 KTX를 타고 강릉까지 이동해 강릉지점 직원들과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떡국을 나눠 먹었다. 이어 속초, 동해 지점을 차례로 방문해 격지에서 근무하는 영업점 직원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IBK기업은행

새해 물가 잡아야



기자 수첩
박인웅
(유통&라이프부)

새해 물가가 꿈틀거리고 있다. 원재료 값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결과다. 자칫 물가상승과 일자리 문제 등 악재가 겹칠까 걱정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올랐다. 근로자의 임금만 오른게 아니다. 프랜차이즈, 화장품 등 유통업계도 줄줄이 가격을 올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느정도의 후유증은 예견됐지만 그 규모와 크기가 더욱

커질 가능성 때문에 걱정이 되는건 사실이다.

프랜차이즈는 이미 가격 인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KFC가 치킨과 햄버거 등 24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5.9% 올렸다. 늘부부대찌개, 신선설농탕도 주요 메뉴 가격을 5.3~14% 인상했다. 죽 이야기는 주요 제품의 가격을 각각 1000원씩 올렸다. 더욱 많은 브랜드들이 가격 인상에 동참할 수도 있다. 이들이 가격을 올린 이유는 가맹점주들의 가격 인상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악재가 지속된다면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에서 고용 축소가 예상된다. 폐업하는 매장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미 중소 매장들은 점원 줄이기에 나섰으며, 외식업계에는 키오스크(무인주문

자판기)를 선보이고 있다. 편의점도 24시간 영업을 포기하는 곳도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청년과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결국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가맹점주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결국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나 서비스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다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parkiu7854@



오토닉스, 일자리 창출로 대통령 표창

오토닉스는 지난 2일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개최된 ‘2017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 포상’ 시상식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오토닉스는 최근 3년간 신규 고용을 약 25.9% 가까이 늘려왔다. 장애인 고용 비율 약 50%, 청년층 고용 비율 약 52%, 여성 비율 약 35% 증가 등 노동 비율도 고르게 형성했다. 전체 인력의 98%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다양한 일자리 만들기에 힘써왔다. 오토닉스 박용진 대표(왼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토닉스

휴롬 착즙기, 호주 소비자단체 우수제품 선정

휴롬은 지난해 출시한 ‘휴롬원더’가 호주 소비자 단체인 ‘더초이스’로부터 우수제품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호주 더초이스는 1959년 호주 시드니 대학교 교수들이 모여서 결성한 비영리 소비자제품 평가 단체로 온라인과 매거진을 통해 제품 평가를 제공하고 있다. 20만명 이상의 정기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 인구의 70%가 이 단체의 평가 결과를 제품을 구매할 정도로 높은 신뢰를 자랑한다.

휴롬원더는 착즙력, 주스품질, 편의

성, 브랜드 만족도를 비롯한 더초이스의 42개 평가 기준 대부분을 최상위 등급으로 충족시켜 ‘꼭 사야 할 제품’으로 평가 받았다.

특히 평가 기준에는 오렌지주스, 사과주스, 당근주스, 그린주스 등 주스 종류별로 비타민, 마그네슘, 철분, 칼슘 등 영양소 보존에 대한 부분도 평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휴롬원더는 작년 호주 명문 백화점 데이비드존스 백화점 62개 매장에 입점해 현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임현재 기자 ihj@

인사

- ◆KB캐피탈 ◇신규 선임 △기업금융본부장 전무 정상철
- ◆뉴스투데이 ◇인사발령 △부사장 정성환
- ◆안랩 ◇신규 선임 △CTO(최고기술책임자) 이호웅 상무 ◇부사장 승진 △강석근 EP사업부장(前 전무) ◇상무보 승진 △한창규 시큐리티대응센터장 △김석중 NW영업본부장 △이상국 EP사업기획실장
- ◆한국화이자제약 ◇이사 △정보전략부 조종행 △컨슈머헬스케어 사업부문 영업팀 이웅구 △컨슈머헬스케어 사업부문 허가팀 전유원 △내과질환 사업부문 의학부 이신원 △내과질환 사업부문 영업팀 이성호 △항암제 사업부문 의학부 이지선 △에센셜 헬스 사업부문 영업팀 고병찬 △에센셜 헬스 사업부문 영업팀 이동수 △회귀질환 사업부문 의학부 이한이 △백신 사업부문

- 영업팀 민병선 △백신 사업부문 영업팀 이상기
- ◆대한해운 ◇승선 △상무 임근욱 김병록 △이사 이동정 △이사대우 민태운 △부장 김태희 유정근 이형석 △차장 한정현 전원규 홍석용 최희대 박종철 배원호 △과장 고경숙 권영남 전유진 △대리 정수인
- ◆퍼시스그룹 ◇퍼시스 승진 △부사장 윤기연 △상무 이사 안창기 △상무이사 박정희 ○일몰 승진 △부사장 강성문 ○바로스 승진 △사장 박광호
- ◆GC녹십자 ◇전무 △마케팅본부 본부장 남궁현
- ◆조아제약 ◇이사 △품질관리부 신춘식 △생산부 이경진 △부산영업소 이정용
-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보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김정옥 ○과장직위 승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특수검역과장 우만수
- ◆한국무역협회 ◇상무 승진 △경영관리본부장 김정수 △무역정책지원본부장 안근배 △국제무역연구원 실장
- ◆서울대 ◇학장·원장 △사회과학대학 학장 이봉주 △의과대학 학장 및 의학대학원 원장 신찬수 △스포츠진흥원 원장 김선진 △부학장·부원장 △인문대학 기획부 학장 정병설 △사회과학대학 교무부학장 신병식 △사회과학대학 학생부학장 주병기 △사회과학대학 기획부학장 박정재 △자연과학대학 기획부학장 장원철 △간호대학 교무부학장 정재원 △간호대학 학생부학장 이남주 △공과대학 연구부학장 남경필 △공과대학 기획부학장 이광근 △농업생명과학대학 연구부학장 장

- 판식 △미술대학 교무부학장 김수정 △미술대학 학생부학장 허보운 △사범대학 기획부학장 박동열 △생활과학대학 교무부학장 권영애 △생활과학대학 학생부학장 추호정 △수의과대학 교무부학장 김용백 △수의과대학 학생부학장 이인형 △음양대학 교무부학장 이신우 △의과대학 교무부학장 및 의학대학원 교무부원장 김종일 △의과대학 학생부학장 및 의학대학원 학생부원장 박경은 △의과대학 연구부학장 이재영 △의과대학 기획부학장 강현재 △자유전공학부 교무부학부장 김범수 △자유전공학부 학생부학부장 이상민 △보건대학원 교무부원장 이태진 △행정대학원 교무부원장 정광호 △행정대학원 학생부원장 우지숙 △환경대학원 교무부원장 김경민 △환경대학원 학생부원장 홍중호 △국제대학원 교무부원장 안덕근 △국제대학원 학생부원장 송지연 △치의학대학원 연구부원장 한승현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무부원장 이교구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학생부원장 박노준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교무부원장 김주근 △국제농업기술대학원 학생부원장 최인규 △스포츠진흥원 부원장 박일혁 △전보 △시흥캠퍼스추진지원본부 행정지원팀장 김영식 △충무과장 김완중 △캠퍼스관리과장 김기업 △감사팀장 정대현 △중앙도서관 수서정리과장 주성희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장 홍순영 △한경대학원 행정실장 나호상 △법학도서관 김미향 △그린바이오과학 기술연구원 행정실장 서정훈 ◇승진 △국제협력과장 송인용 △총장실 강형석 △감사팀 박태용 △총무과 주용식 △

- 평생교육원 신승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박숙희 △농업생명과학대학 서준수 △의과대학 정국선 △전보·승진 △미술대학 행정실장 강병영 △수의대 행정실장 황희영 △행정대학원 행정실장 백승숙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권정일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김화택 △중앙도서관 수서정리과 정노욱
- ◆서강대 △대외부총장 서정연

부음

- ▲김명환씨 별세, 김사소(전자신문 기자)·시무(ECM)특허법률사무소 대표)씨 부친상 = 2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4호, 발인 5일 오전 9시, 02-2072-2020
- ▲김갑이씨 별세, 이성진(코스콤 전자인증사업부 차

- 장)·성욱(공군 중령)·미숙(개금여자중학교 교사)·은숙씨 모친상, 차갑성(성정비나 대표)·박상균(여부공학 대표)씨 장모상, 최세경(안양시청 주무관)·고영경씨 시모상 = 2일 오후 4시 8분, 김해전통장례식장 201호, 발인 5일 오전 7시, 055-337-3946
- ▲정승자씨 별세, 문희갑(전 대구시장) 부인상, 지역·지방·지원세 모친상, 이명용(단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김태웅(오기너 브릿지 대표이사)·권영준(시즈스 파트너스 대표이사)씨 장모상 = 3일 오전 5시, 동산의료원 장례식장 102호, 발인 6일 오전 8시, 053-250-8145
- ▲이상목씨 별세, 이준희(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의장)·광희·성원(SK이노베이션 근무)씨 부친상 = 3일 오전, 울산중앙병원 장례식장 로얄실, 발인 5일 오전 8시, 010-5410-7050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1721-9800, FAX: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규
편집국장 이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3
독자센터 021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206